

2023년 신년예배와 하례회

2023년 1월 2일(월)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신년예배와 하례회

인도 : 부회장 **김은섭** 총회장(기독교한국루터회)

* 표는 일어서서

예배 부름*

인도자 : 그 때 옥좌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하고 말씀하신 뒤 다시금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계 21:5, 공동번역)

회 중 :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새해를 맞은 저희도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지어주옵소서.

경배 찬송*

다 감사드리세 66

(총 20) 창조주 M. Rinkart, 1636 보통으로 NUN DANKET: 6.7.6.7.6.6.6.6. J. Crüger, 1647 Harm. by F. Mendelssohn, 1847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대상 29:13)

1. 다 감사드리세 온 땅을 주께 바쳐서
 2. 사랑의 하나님께 나합께
 3.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그 섭리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소서
 그 지평과 평화의 서 온 내 스리시는

예부터 주 신복한 없는 그 사랑
 몸과 말한 병들 때 은 해로 지키사

선물로 주 시네 이 제와 영원 히
 이 세상에 악에 서 구하 영 주 소 히
 에 도 이 제 도 장 래 도 영 원 히 아 멘

시편 교독* | 시편 8편

인도자 :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회 중 :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인도자 :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회 중 :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인도자 :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회 중 :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인도자 :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회 중 :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도자 :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회 중 :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도자 :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으니

회 중 :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 기도*

인도자 : 믿음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회 중 : 생명의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과 생명을 주시고,
귀한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갈 이웃을 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 입술에는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임없어야 하고,

우리 마음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리움과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에 찬양이 멈추고, 마음에는 냉담함과 원망이 가득 찬 것은
주님의 은총을 깨닫는 심령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이 베푸신 은총을 깨닫고, 주님의 일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잠시 침묵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의 선언*

인도자 :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후 5:17)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회 중 : 아멘.

기 도 **윤창섭** 총회장(기독교대한복음교회)

성경봉독 서기 **이천우** 목사(기독교대한복음교회)

그런 다음 다윗은 온 회중에게 “너희 하느님 야훼를 찬양하여라” 하고 외쳤다. 그러자 온 회중은 저희의 조상들을 보살피시던 하느님 야훼를 찬양하며 야훼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

그 다음 날 백성은 야훼께 친교제를 드리고 번제를 올렸다. 소 천 마리, 수양 천 마리, 새끼 양 천 마리 에다가 제주를 곁들여 바쳤다. 온 이스라엘을 생각하여 이렇게 많은 제물을 바쳤던 것이다.

그 날 그들은 야훼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이대 왕으로 모셨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야훼께 바쳐 영도자로 받들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사제로 세웠다. (역대상 29장 20-22절, 공동번역)

특 송 “**축복하노라!**” 테너 **정태성**

설 교 “**야훼를 찬양하여라!**” 회장 **강연홍** 총회장(한국기독교장로회)

신앙고백 ‘**기후정의주일 신앙고백문**’ **다같이**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포용하시며,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창조 세계의 모든 부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행성에 살아있는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함께 고통받으시는

고통 받는 이, 가난한 이, 영양실조에 걸린 이, 기후난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려고 오신

생명의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시며, 오늘 우리 사이에서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모든 파괴적인 세력을 없애실 것이라는
소망을 믿습니다. 아멘

특별기도

- 1)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한 기도** 부회장 **홍보연**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창조의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구나' 감탄하셨습니다. 간구
하오니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바라보셨던 주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어, 우리의
피조세계를 파괴하는 길에서 돌이켜, 창조질서를 보전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 2) **교회일치를 위한 기도** 회계 **이기봉**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수난 당하시기 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간구하오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시어 이 땅의 교회들이 한 주님을 섬기는 서로 서로의 교역을 상호 인정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소서.

- 3) **사회정의를 위한 기도** 총무 **하성웅** 목사(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구원의 하나님, 주님은 억압과 폭력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
이시며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사랑을 가득 채우시어 생명의
존엄을 파괴하는 모든 세력과 맞서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 4)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부회장 **이종화** 청년(감리교청년연합회)
자비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대속물이 되사 막힌 담을 허시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간구하오니, 갈라져 고통당하는 이 겨레를 불쌍히 여기사 남북의 교회가 분단의
상처로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위로하게 하시고 종전을 선포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성 만 찬 -

집례 : 이경호 의장주교(대한성공회)

집례자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회 중 : 또한 주교와 함께 하소서.

집례자 : 마음을 드높이

회 중 : 주님께 올립니다.

집례자 :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회 중 :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집례자 :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Sanctus)

회 중 :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집례자 : 거룩하시나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 거룩하시나이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시나이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 주께서는 사람도 거룩하도록 하느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나 사람은 죄에 빠졌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어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곧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버리시던 그 때에 거룩하신 손으로 빵을 들어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 그와 같이 잔을 드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영광 속에 다시 오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이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소서.

주여, 피흘림 없이 합당하게 드리는 이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와 이 예물 위에 성령을 내리시어,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귀하신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또한 이 성사를 받는 모든 이들이 죄를 용서받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겸손히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모든 주교와 사제와 부제를 기억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보전하며 가르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신자들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또한 영생과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이들 [특별히 ()] 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회 중: 아멘

주의 기도

+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니다.
(각자의 번역에 따라 기도합니다.)

성체 나눔

집례자: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회 중: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 어린양(Agnus Dei)

회 중: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영성체(Communion)

집례자 :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회 중 :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집례자 :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은 나를 지키시어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성체[보혈]

회 중 : 아멘

성체성가

542 **주님 여기에 계시니** 친교와 모임

1 주님 여 기에 계 시 니 주님 여 기에 계 시 니
 2 주 여 내 마음 가 득 히 주 여 내 마음 가 득 히
 3 주 여 성 찬에 왔 으 니 주 여 성 찬에 왔 으 니

주님 여 기에 계 시 니 찬 미 를 드 리 네
 주 여 내 마음 가 득 히 사 랑 을 주 소 서
 주 여 성 찬에 왔 으 니 떡 이 어 주 소 서

4 주여 하나 된 우리를 주여 하나 된 우리를
 주여 하나 된 우리를 돌보아 주소서

5 주여 당신을 충실히 주여 당신을 충실히
 주여 당신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집례자 :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서로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582 **어둔 밤 마음에 잠겨** (통일 261)

김재권(1901-1987)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참 10:15) 나라사랑
 교회: WREG. 이응훈, 1967

보통으로

1. 어둔 밤 마음에 잠겨 역사 에 어둠질었을 때 에
 2. 옥토 에 뿌리는 깊어 하늘 로 줄기가지속을 때
 3. 맑은 샘 줄기용 솟아 거칠 은 땅에홀려적실 때

계명 성 동쪽 에 밝아 이나 라 여명이 왔 다
 가지 일 억만 을 헤 어 그 열 매 만민이 산 다
 기름 진 푸른 별 판 이 눈 앞 에 활짝 트 인 다

고요 한 아침의 나 라 빛 속 에 새 름 다
 고요 한 아침의 나 라 일 꾀 을 부 른 다
 고요 한 아침의 나 라 새 하 늘 새 땅 아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 에 생명 탐 놓 아 간 다
 하 늘 씨앗이 되어 역사 의 생명을 이어 가 리
 길 이 껴 지지 않는 인류 의 햇불 되어 타 거 라

쉬운 기악코드(capo=1st) Ab→G Db→C Bbm→Am Bb→A Eb→D

축도*

부회장 **이순창** 총회장(대한예수교장로회)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며, 여러분을 지켜 주시고, 주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시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께서 여러분을 미쁘게 보사 평화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년하례 다같이

신년인사 총무 이홍정 목사

내빈 소개 및 광고 총무 이홍정 목사

* 알리는 말

1. 계묘년 새해에도 섬기시는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2. 오늘 함께 신년예배와 하례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 1층 로비에 다과를 준비하였으니, 새해 인사를 나누시며 친교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3. 1월 19일(목)에 71회기 1차 실행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년인사

이홍정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생명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2023년 새해를 맞아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총체적인 생명 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지구생명공동체의 일원으로 생명살림의 복음의 사명을 새롭게 자각하면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해달라는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걸어온 에큐메니칼 운동의 길이 철저한 자기 비움의 영성과 존재적 증언에 기초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의를 쳐서 굴복시키는 회개와, 일치와 참여를 위한 값비싼 친교와,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는 순교적 증언과 연대로 이어지는 유기적 순환의 과정을 만들어내는데 미흡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들 사이에 주어진 마음의 에큐메니즘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외부를 향한 비판의 소리를 정작 우리 자신을 향해 행하기를 주저하며 변화를 꺼려하였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은 영성을 내면화하지 못하고, 모순(矛盾)의 갈등적 공방을 계속하였습니다.

우리는 2023년이라는 새로운 연대기적 삶의 기회를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기회로 삼기 위해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성찰적 고백을 우리의 실천 속에 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는 자유인입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함으로 그들처럼 되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중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여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성찰에 대한 책임적 응답이 십자가 아래서 부활을 살아가는 에큐메니칼 신앙공동체의 존재적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과 자연이 경험하는 가난과 질병과 억압과 절망과 죽음에 상관되지 않은, 나의 부와 건강과 자유와 소망과 생명은 없습니다. 이 같은 영적 자각은 자발적 가난과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길을 걸어 성문 밖으로 나아가신 주님의 생명의 좁은 길, 정의롭고 참여적이며 지속 가능한 전환을 만들어 가는 생명살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빈곤이 구조화된 세상이 만들어내는 혐오와 차별, 불평등과 배제를 넘어 정의로운 탈성장·탈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합시다. 다름의 경계를 넘어 인간다운 풍성한 삶을 위한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적·수평적 참여사회로 전환합시다. 성장의 한계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인간의 탐욕의 문명이 초래한 ‘자연 없는 인간 사회’라는 존재의 위기와, 생존의 기본조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주적 생명 생태공동체로 전환합시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종의 심정으로 이 전환의 계기를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앞에 철저히 자기 의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회, 공동체의 재창조를 위해 내가 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자신을 내려 놓는 기회, 나와 다른 지체들이 소외감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공존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포용과 환대의 기회, 내가 가진 무엇을 더 나누며 더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헌신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새해를 맞아 재창조를 위한 협의회적 계약을 갱신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